

‘세계적 거장’ 화가 루오가 온다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전을 준비중인 전남도립미술관 관계자들이 28일 전시실에서 풍피두센터 소장작 ‘어린 피에로’ 작품을 설치하고 있다. 전시는 10월 6일 개막하고 2023년 1월 29일까지 계속된다. /광양=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10월 6일부터 전남도립미술관에서 ‘베로니카’ ‘어린 피에로’ 등 명작 200여 점 블록버스터 전시 이중섭·구본웅·손상기 등 루오 영향 받은 화가 23명 작품도

오는 10월 6일부터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전시될 세계적인 거장 조르주 루오의 작품이 베일을 벗었다.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인 작품 설치 작업을 시작한 전남도립미술관은 28일 현재 ‘베로니카’, ‘어린 피에로’, ‘미제레레’ 등 200여 점의 작품을 관람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주일보가 공동주최하는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2023년 1월29일까지)전은 그가 전 생애에 걸쳐 작업한 유화, 판화, 유품 등을 선보이는 블록버스터 전시다. 프랑스 국립 풍피두 센터와 조르주 루오 재단에서 엄선한 작품들은 지난 24일 미술관에 도착했고, 작품 체크 과정을 거쳤다. 미술관측은 작품 설치와 함께 조명 배치, 관람객 동선 구성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조르주 루오(1871-1958)는 마티스, 피카소 등과 함께 20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화가다. 초창기 스테인드글라스 견습공으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오묘한 색채 발현과 야수파 영향을 받아 아카데미 양식의 작품을 그렸다.

이후 종교적 감정에서 유래한 그의 작품은 종교라는 경계를 넘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다. 1·2차 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는 광대, 가난한 빈민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그렸고 전쟁의 비극으로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이번 전시는 1000여 점의 루오 관련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풍피두센터와 조르주 루오 재단, 말랭 캄페리에서 엄선한 200여 점의 유화·판화 작품을 선보이는 대규모 기획전이다. 작품과 함께 팔레트 등 루오가 사용했던 유품도 전시한다. 특히 루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국제 세미나도 마련돼 의미를 더한다.

이번 ‘조르주 루오’전에서는 루오의 화풍과 영향을 받은 한국 근현대 표현주의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선보인다. 이중섭·구본웅·손상기 등 23명의 작품 54점을 만나는 ‘조르주 루오와 한국미술전’ 전시구성도 한창이다.

이번 전시는 10월 5일까지 얼리버드 티켓을 구입하면 40% 할인된 가격에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인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측면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며 “신에 대한 믿음과 소외된 자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았던 루오의 이념을 넘어 인간애, 슬픔과 삶에 대한 애환을 감각으로 느껴보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조선대부속 고등학교 부스를 방문,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설명을 청취한 뒤 로봇팔을 활용한 커피 제작 과정을 관람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광주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제도·재정 지원 아끼지 않겠다”

尹대통령 DJ센터서 비상경제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를 찾아 “반도체,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전략 분야에 집중투자 해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의 핵심 현안 사업인 인공지능(AI) 분야 경쟁력을 세계 3위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2배인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광주의 인공지능 발전과 정부의 플랫폼화의 성공은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광주에서 산학연이 협력하는 자리가 자주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가 일찌감치 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이라면서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호남지역을 방문한 것은 취임 직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한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월 광주를 방문해 “인공지능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선도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이른바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윤 대통령은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구상과 오늘 발표한 디지털 전략을 토대로 우리나라를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킬 체계적인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경쟁력 강화, 데이터시장 규모 확대, 전략분야 집중 투자 등의 목표를 제시한 다음 “무엇보다 디지털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지금 준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보다 더 촘촘하게 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돌봄 로봇과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활용해 국민 건강을 든든히 지킬 것”이라며 “또 클라우드 기반 병원 정보 시스템이나 인공지능 의료 기술을 활용해 국민 건강을 든든히 지킬 것이다. 전국 상권을 빅데이터로 정밀 분석해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광주 복합쇼핑몰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광주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극 활용돼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광주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공지능사업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AI 우수인재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AI영재고 설립과 국가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차 소·부·장 클러스터 지정, 차세대 먹거리 선점을 위한 AI와 반도체를 융합한 ▲AI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경, 광주 인쇄 시대 개막!

광주에서도 서울과 똑같은 생생한 한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77-545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온라인샵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수입처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